

삶을 위한 신학

: 모든 이를 위한 기독교 신학 입문

박종진 (고려대 교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당대의 사상과 전통,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투쟁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열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과업이다.

많은 신자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학문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 체계화된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이견도 많지만, 신학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세계관과 같다. 즉, 신자들은 누구나 어떤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필요 없다고, 심지어 논쟁을 일으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필요악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은 무엇일까?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는 신학은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을 제안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내용이고, 2부는 현대 자연과학에 대한 신학자의 비판이다. 저자는 신학자가 기독교 전통

을 세상에 설명하는 역할과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 책 2부에서 직접 모범을 보인다. 책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은 1부에서 진행된다. 각각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므로 어떤 부분을 먼저 읽어도 유익하다.

1부에서 저자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한다. 신앙을 통해 이해하려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신학이다. 또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광활한 지평을 조망하며, 복음을 '경관'에, 신학을 '지도'에 비유한다. 지도는 경관에 종속되는 자료지만 우리가 경관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비유가 적절한 것은, 지도는 개정될 수 있고, 옛 지도는 그 당시 경관이 어땠는지, 경관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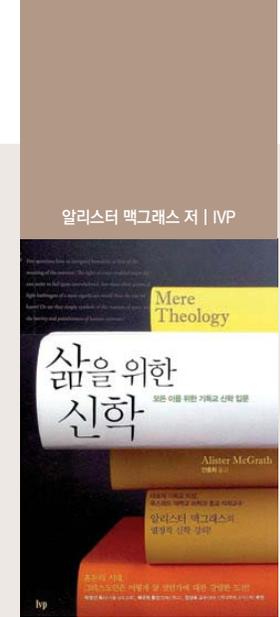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에는 성경, 이성, 그리고 전통이 있다.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 되었다.'는 점에서 권위가 있다. 이성은 한계가 있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를 숙고할 수 있게 한다. 전통은 성경해석 방식에서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토대 위의 신학이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좋은 예가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이해이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신학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지향점을 지적한다. 그는 옥스퍼드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던 18세에 신자가 되었다. 기독교가 무신론보다 현실을 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저자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성적, 합리적 신학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저서에서 "신학자는 이해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과 저주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진술을 접하고 혼란에 빠진다. 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는 말에도 걸렸다. 그는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당시에는 그의 신앙이 지적이고 학문적이었을 뿐 아니라, 현실 경험은 '명확하고 뚜렷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초년생 신학자로서 그의 목표는 개념적 정확성이었다.

저자는 3년간 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면서 학문적 신학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특히, 장례식장을 오가며 논리적인 신학 개념들이 감정과 관계 면에서 피상적인 것임을 깨닫는다. 저자가 존경하는 C. S. 루이스도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지성에 근거한 이성적 신앙의 취약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저자는 비로소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세상의 험한 경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학은 의구심과 절망에 빠지기 쉽다고 고백한다.

또 신학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곧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간증한다. 신학은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예배 공동체에서 최고의 신학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신학자, 곧 목사는 신학적 유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위해 이 위대



한 전통을 해석·적용하는 한편, 공동체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공동체의 문체와 열망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언어와 이미지로 공동체와 기독교 복음을 연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은 묵회, 선교, 예배를 통해 말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저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는 신학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서구 교회는 변증과 복음 전도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변증은 궁극적인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것이고, 복음 전도는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변증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복음 전도는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증은 회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을 개종

시킬 수 없다. 진정한 회심은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변증은 신앙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지만 헌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반대로 복음 전도에만 치우치면 자칫 내용이 없는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도 하나님이 신학적 숙고, 변증 활동에 참여하신다고 하면서, 진정한 변증론은 복음의 풍성함과 기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부에서 저자는 자연신학자로서 문화에 대한, 특히 자연과학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저자는 자연과학이 무신론보다 기독교 신앙 체계와 훨씬 더 잘 조화됨을 깨닫게 된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성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과학 활동의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과학과 종교'의 대립 구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를 필두로 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 빚어진 구도라는 것이다. 도킨스는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학으로 존재가 증명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적 사실은 일부이고, 형이상학적, 비과학적 신념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은 특정 영역을 다루는 학문일 뿐이다.

〈종의 기원〉은 다윈이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최선의 설명으로 정리한 책에 불과하다. 사실 다윈의 이론은 작업가설 수준으로 예측을 제공할 수도 없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자연선택으로 나타난 종의 변화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윈은 자연 세

계가 자연선택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믿었다. 이런 신념은 종교적인 것이다.

저자는 창조와 진화에 대하여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of Hippo)의 견해를 소개한다. 다윈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해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저자는 그가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라는 저서에서 창세기 저자와 동일한 의도로 해석을 시도했다고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잠자는 씨앗의 형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존재의 종류와 특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지배하는 고정된 법칙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형성·발전시키고 계시는데, 이러한 주장은 다윈의 돌연변이 개념과 상충된다. 저자는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진보적이지도 타협적이지도 않은 성경적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종교는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하는 도킨스의 새로운 무신론을 통쾌하게 비판한다. 또한 새로운 무신론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몽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함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비평해보자. 먼저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지성'이다. 저자는 신학을 '지성의 제자도'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지성'은 학문적 깊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성'이란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힘이다.

신앙공동체 곧 교회에서 신학자는 목사이다. 목사는 저자가 주장한 대로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교회의 상황, 교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루이스는 "만일 자신의 생각을 학식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뀌어서 제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명료하지 않은 생각일 뿐"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산상보훈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은 말이 어눌하다며 거절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까지 하셨고, 결국 말을 잘 하는 아론과 함께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를 소통의 통로로 세우셨을까? 소통은 대화이고,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변에 능하지 않더라도 듣는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면 소통은 원활해질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쪽이 소통의 문을 닫으면 대화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감추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소통이 단절되는 것은 어느 한쪽의 교만과도 관련이 있다.

저자는 신학자, 즉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에 대해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권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대로 사역하려면 교인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이 사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목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교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소통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나는 프린스턴신학교의 찰스 하지(Charles Hodge) 박사가 주장한 보수적 반다윈주의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는 자연에 나타난 계획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눈의 구조를 보면 그것이 계획되어 나타난 산물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찰스 험멜(Charles Hummel)은 하지 박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종의 고정성과 과학의 확실성에 대한 철학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종의 고정성은 믿지만 과학의 확실성은 믿지 않는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1장 해석을 인용하

면서 창세기 저자의 의도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보수적 다윈주의와 상통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발전하고 진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이 입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씨앗의 형태로 창조된 피조물이 특정한 종으로 정착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절대주권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창세기 1,2장의 해석이나 창조의 방법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도 창조는 이해 밖의 일이다. 이런 어두운 무지 속에서도 신자들은 루터가 말한 '십자가 신학'의 소망을 발견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 모든 신자들도 그때에는 창조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분별하여 드러내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학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빌어 현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또 일반 신자들이나 목사, 그리고 신학자들이 신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또한 진화론에 대한 그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신학자가 현대 사상에 공언해야 한다는 주장의 실례도 보여주었다. 저자가 들려주는 진솔한 경험담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합리적 신학의 한계라든지, 변증과 복음 전파의 차이 등을 논할 때에는 내 마음도 뜨거워졌다. 많은 신자들이 신학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나누고 삶 속에서 믿음의 지성을 드러내기 바란다.



박중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보스턴대학교 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뇌질환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등에서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물 행동의 신경조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